

# 정토사 홍법국사실상탑의 기원과 의미

강병희\*

- I. 서론
- II. 정토사 홍법국사실상탑의 양식과 球形塔身
- III. 禪宗 浮屠의 球形塔身 출현
- IV. 결론

## I. 서론

정토사 홍법국사실상탑(以下 홍법국사탑으로 호칭함)(도 1-1)은 8각형의 기단 위에 둥근 원형의 탑신이 놓이고 탑신석과 옥개석은 원기둥형 부재로 연결된다. 상륜부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경북궁 이동 후 1961년 사진 자료까지 복발과 양화가 한 돌로 조성된 부재를 포함한 2 개의 불분명한 석재가 올려져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도 1-2) 이 중 양화형 부재는 1983~1984년까지도 남아 있었다.<sup>2</sup> 안쪽 양 끝단이 좁아진 4매의 직사각형 판석으로 결구된 지대석은 원 위치에 남아 있다(도 1-3).<sup>3</sup>

홍법국사탑은 9세기부터 조성된 우리나라 선종 승려들의 浮屠가 8각 원당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각의 탑신이 球形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 부도의 둥근 탑신석은 사방 중앙에 4개의 4엽 花紋이 놓이고 이를 중심으로 띠가 십자로 둘러진 조각이 있어 불탑 상륜부의 복발을 연상시킨다.

\* 충북대 강사

1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둘』(하늘재, 2003) pp. 93-112.

2 鄭永鎬, 「中原 淨土寺址 A·B地區 發掘調査 報告-1983年度」,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査綜合報告書-佛蹟分野』(忠北大學校博物館, 1984) p. 85.

3 鄭永鎬, 앞 논문(1984), p. 85;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학연문화사, 2003), 부록 p. 605와 p. 620.



도 1-1 정토사 흥법국사실상탑 전경, 고려 목종 말기(문화재청)



도 1-2 원 위치 시기의 전경(문화재청)



도 1-3 원 위치 지대석 남면, 너비 2m, 충주 동량면 하천리 산 60

따라서 이러한 형태가 석탑 상륜부의 복발형에서 착안되었고 상륜부 복발은 원래 인도 불탑의 복발형 탑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일찍부터 이를 모방한 불탑과 사리기 등이 있었으므로 球形은 불격과 대등한 의미를 지닌 조형물로 이해되고 창조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sup>4</sup>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動因, 복고적인 형태가 왜 새삼스럽게 부도에 등장하게 되었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 좀 더 추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浮屠의 球形 탑신은 흥법국사탑 이후 오랜 동안 단절되었다가<sup>5</sup> 고려 중기 지눌선사

<sup>4</sup> 鄭永鎬, 『동원 김흥배박사고회기념논문집』, 「고려시대의 특수형부도탑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1984), pp. 216-224에서도 석탑 상륜부의 복발형과의 관계 언급; 蘇在龜,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6), pp. 111-114.

<sup>5</sup>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국사사리탑도 球形 탑신을 보인다.(고유섭, 『조선탑파의 연구』下 -우현 고유섭 전집 4권(열화당, 2010), pp. 169-171) 그러나 석등과 같은 기단부와 탑신부의 비중이 작은 형태, 장식 의장 등에서 기존의 球形 부도들과는 크게 다르다.

의 송광사 불일보조선사감로탑(1213년)에 잠깐 나타났다가 14세기 말인 고려말 조선초 회암사 지공, 나옹, 무학대사의 탑들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이후 조선시대에 보편화된다.

이들과 홍법국사탑은 같은 선종 승려들의 탑이기는 하지만 시기적, 지역적, 계파적으로 볼 때 양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통적인 배경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이 점은 보조선사탑과 회암사 三大師 부도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은 홍법국사탑의 양식적 기원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각 시기마다 나타나는 球形 탑신의 부도는 시간의 차이만큼 새로운 양식적 배경이 첨가된다. 하지만 그 양식의 기원과 초기 상징성은 변하지 않고 내재되어 계승되기 때문이다.<sup>6</sup>

## II. 정토사 홍법국사실상탑의 양식과 球形 塔身

### 1. 양식

정토사지 뒷산 원 위치에 남아 있는 지대석은 안쪽의 양 끝단이 직각으로 줄어 든 긴 직사각형 판석 4매로 맞물려 있다(도 1-3). 그 위에 8각형 2매의 부재로 이루어진 기대석은 다소 높으며 면석에 2단의 구획 표시가 모각되었다. 상면에는 角, 弧, 角으로 이루어진 윗 부재를 받기 위한 테두리 받침이 새겨져 있는데 중간의 圓弧가 다른 예들 보다는 크다.

그 위로 한 돌로 이루어진 複瓣의 등근 伏蓮石이 있으며 伏蓮의 각 모서리에는 귀꽃 문양이 세워져 있다. 윗면은 기대석과 동일한 양식의 테두리 받침에 이어 낮은 괴임대를 조각하여 기단 중대석을 받고 있다. 이는 940년에 조성된 興法寺眞空大師塔의 기단 하대석 상면과(도 2-1) 유사하다.

기단 중대석은 8각 1석으로 높지 않으며 각 면에는 중앙에 귀꽃이 솟은 안상 안에 봉암사정진대사탑 기단 하대석 상면과 같이 각 면의 운룡문과 보주문이 연결되듯이 조각되었다. 각 모서리에는 기둥을 모각하는 대신 문양화 된 花文을 장식하였다(도 1-4).

기단 중대석 안상 중앙에 귀꽃이 솟아 있는 양식은 1025년에 조성된 居頓寺 圓空國師

<sup>6</sup> 서산대사 휴정이 造成記를 남긴 1603년 조성의 '묘향산 용주봉의 진신사리탑'의 양식과 기록을 통해 球形 부도를 살펴 보면서 이러한 연결 관계를 주목하였다.(강병희, 「묘향산 용주봉의 진신사리탑을 통해 본 球形浮屠와 사리구」, 『불교미술사학』(불교미술사학회, 2013. 3), pp. 137-142)



도 1-4 기단부(문화재청)



도 1-5 옥개석 하면(문화재청)



도 2-1 흥법사 진공대사탑 기단 하대석, 940년

勝妙塔 기단 하대 면석(도 3-1)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11세기경부터 보편화되고 있다.<sup>7</sup> 기단 중대석 모서리 기둥 대신 花文을 길게 장식하는 모습은 興法寺眞空大師塔 탑신석 모서리 화문장식과(도 2-2) 흡사하며 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 탑신부 면석 모서리의 좀 더 화사한 화문 장식과도 닮아 있다(도 3-2).

기단 상대석은 하대석보다 날렵한 편으로 仰蓮이 조각되었는데 연화문 안에 화려한 화문 장식이 있어 역시 가까운 시기의 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의 기단부 상대석 연화 양식과(도 3-3) 유사하다. 윗면에는 가장자리를



도 2-2 탑신부 모서리 화문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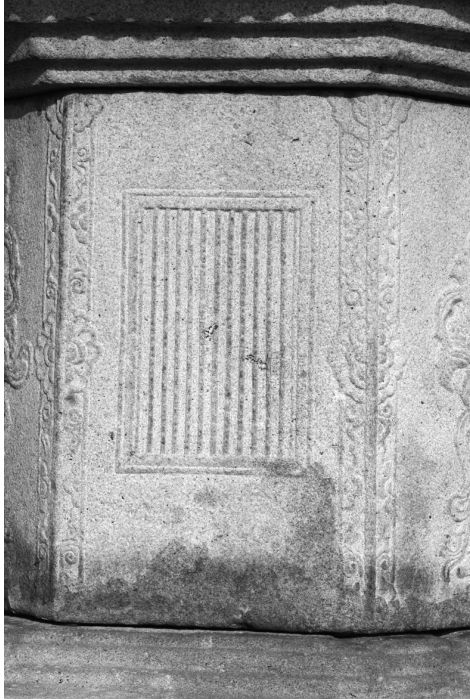
7 강병희, 『고려 현종대 銘文석탑의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3), p. 21.



도 3-1 거둔사 원공국사승묘탑 기단 하대 면석 안상, 1025년



도 3-3 기단 상대석 연판



도 3-2 탑신부

따라 8각의 낮은 단이 모각되고 편평한 중앙에 둥근 탑신이 올려져 있다.

탑신은 약간 횡폭이 넓은 扁球形으로 둥근 탑신 상단으로부터 십자 형태로 두 줄의 양각선이 사방으로 내려지고 다시 탑신의 배부른 중앙부에 두 줄의 양각선이 둘러져 가로와 세로선이 만나는 4 지점에 화형을 조각하였다. 탑신 상단과 하단에는 伏蓮과 仰蓮이 새겨지고 탑신 위에는 원형 기둥석이 있어 옥개석을 받고 있다(도 1-1).

옥개석은 두툼고 깊숙한 샷갓처럼 안으로 움푹하고 넓으나 물매가 급한 상부와는 달리 하단에서 원만한 반전을 이룬다. 전각에 이르러 위로 솟은 귀꽃을 장식하였

다. 옥개석 상단에는 연화가 둘러져 상륜부를 받고 있다(도 1-1). 옥개석 아래 면도 완만한 S자형으로 굴곡을 이루며 펼쳐져 전체적으로 둥근 탑신을 감싸듯 유연하며 안정감을 준다. 옥개석 하면에는 우산살 같이 표현된 추녀로 8각 면을 구획하여 비천과 화문을 장식하였다. 원형 기둥석과 만나는 곳에도 角, 弧, 角의 테두리 받침을 두고 그 주위에 연화를 장식하였는데 연판 내부에 화려한 화문을 두었다(도 1-5). 연화와 테두리 받침 등의 세부 장식은 기단부 방식과 동일하다.

상륜부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1983년~1984년까지 복발과 양화가 한 돌로 조성된

부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도 1-2).

이상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은 옥개석 우동마루 끝에 솟은 귀꽃, 내부에 화려한 화문이 장식된 연판들, 면석 기둥 대신 장식된 문양화 된 花文, 귀꽃이 중앙에 솟은 안상, 8각 모서리마다 귀꽃이 솟은 연판, 몰딩 수법, 세밀하고 정지한 조각 수법 등에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양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줄의 끈 장식이 십자 형태로 중앙 4면에서 만나고 그 곳에 화문이 장식된 둥근 球形塔身을 둔 점은 매우 독특하여 현재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 2. 球形塔身の 기원

둥근 탑신은 인도 스투파의 복발형 탑신에서부터 비롯된다. 인도에서는 산치탑과 같이 평지에 쌓는 스투파는 복발형으로 조성되지만 석굴의 탑이나 조각에 보이는 예들 중에는 일찍부터 구형이 나타난다. 기원전 2세기에 개설되기 시작한 피탈코라 초기 10굴의 예, 기원전 1세기 추정 아잔타 9굴 차이티야 석굴 입구 외벽면 부조 탑들, 기원후 2세기경의 칸헤리 차이티야굴 외벽 탑 부조 등이 그것이다. 5~6세기에 이르면 구형 탑신이 계란형 혹은

항아리형 사리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엘로라, 아잔타, 칸헤리, 나식 등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8</sup>

그리고 이들 탑신에는 워싱턴 프리어 갤러리에 소장된 바르후트탑 난간에 조각된 오래 된 복발 형식의 스투파와 같이(도 4)<sup>9</sup> 여러 형태로 공양된 꽃 타래가 장식되거나 혹은 단순화되어 중앙에 횡으로 띠를 두르고 측면 매듭에 꽃이 놓여 지기도 한다(도 5).<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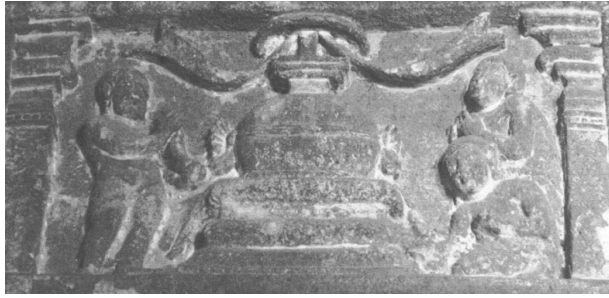
도 4 바르후트탑 난간의 스투파 조각, 기원전 150년경 워싱턴 프리어 갤러리 소장(『世界美術全集』11권, 도 2)

이들 복발형과 구형 탑신의 기원은 天山을 덮는 天球의 건축, 서남아시아 최

8 이희봉, 「탑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 『건축역사연구』67(2009.12), pp. 107-122, 김준오 천득염, 「인도 석굴사원의 Relief Stupa 연구」, 『건축역사연구』83(2012.8), pp. 7-24.

9 下中彌三郎編, 『世界美術全集』11권(平凡社, 1957)의 도 2와 p. 256.

10 김중오 천득염, 앞의 책(2012.8), p. 19, Tab. 6의 ㉔의 글과 그림.



도 5 아잔타 비하라 17굴 전실 열주 상단의 스투파, 5세기(『건축역사연구』83, p. 19, Tab. 6의 d)

초의 카오스 상태에서 출현한 물방울 같은 우주적 卵에서 나타난 우주적인 산, 기원전 3000년 전 새겨진 Susa의 각 판에서 보이는 돌로 쌓아 올린 우주적인 산, 초기 역사시대인 Nasik 제 2기 유적의 테라코타 스투파, 인더스 계곡의 linga type, 기원전 6~7세기 추정 페

니키아의 돛형 아무리트 분묘, 돛형 주거, 돛형 주거에서 유래한 분묘 등에서 찾는다.<sup>11</sup>

의미는 원래 인도 탐 탐신의 명칭이 알(egg)의 범어인 안다(anda)인 점에 주목하여 인도 탐의 둥근 탐신은 힌두의 지성소, 여성의 자궁, 태초에 물에서 탄생되는 ‘황금의 알’을 상징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곳에 봉안되는 사리는 새로운 변화와 창조 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sup>12</sup>

### 3. 球形塔身의 변용

인도 스투파는 간다라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이르러 중층누각 형식의 목조탑으로 크게 변모하는데 이는 기단부가 중층 건물 형태로 발달했던 간다라 불탑에서 기인한

<sup>11</sup> 천득염, 「인도시원불탑의 의미론적 해석」, 『건축역사연구』4호(1993.12), pp. 91-95(이에 관해 Benjamin Rowland, “The Art and Architectur of India Buddhist, Hindu, Jain”, The Pelican History of Art, p. 79; Ackirman, “West Asiatic Ancestors of the Anda”, Marg, 11, pp. 16-23; Sankalia, “Report on the Excavation at Nasik and Jorwe”(1950), p.23; Irene N. Gajjar, “Ancient Indean Art and the West”, p. 111-113; Jairazbhoy, “Foreign Infulence in dian Ancient India”(1963), p. 35; Debala Mitra, “Buddhist Monument”, The Indian Press Pvt. Ld.(1971); Longhurst, “The Evolution of the Stupa”, The Story of the Stupa(1936), p. 12; Percy Brown, “Indian Architecture, Buddhist and Hindu Periods” pp. 2-5; Satish Grover, “The Architecture of Incia, Buddhist and Hindu”,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p. 14; 장충식, 『신라석탑연구』(일지사), p. 63; 杉本卓洲, 『インド佛塔の研究』(東京 平樂寺書店, 1984), p. 192-219. 등의 관련 논문이 인용되고 있다)

<sup>12</sup> 천득염, 앞의 책(1993.12), pp. 95-98; 이회봉, 「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인도 스투파에서부터 한국 석탑으로의 변환을 바탕으로」, 『건축역사연구』71호(2010.8), pp. 57-58; 이회봉, 「인도 스투파의 ‘자궁-알’ 상징성 고찰을 통한 탐 상부 복발 양화와 단청 석류동의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89호(2012.11), pp. 244-247.(Peter Harvey, “Veneratec Objects and Symbols of Early Buddhism”(Symbols in Art and Religion), p. 85; Percy Brown의 앞의 책; Adrian Snodgrass, “The Symbolism of the Stupa”, p. 189-192; Stella Kramrisch, “The Hincu Temple”, p. 15 등의 참고 문헌이 제시 됨)



도 6 불국사 다보탑 상륜부 복발, 8세기

다. 간다라의 그리스 로마적인 건축이 중국 고유의 목조 건물로 바뀌면서 인도 스투파의 형상은 탑머리에 상징적인 의미로 올려지게 되었다고 본다.<sup>13</sup> 따라서 동북아시아 불탑에서는 스투파의 복발형 탑신을 상륜부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석탑 상륜부의 복발은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가장 오래된 예로 남아 있는데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같이 아래

위가 약간 늘린 편구형으로 상, 하에 연화문이 장식되고 4면 중앙에 4엽 화문이 조각되며 좌우에는 이것을 연결하는 2조의 횡대가 돌아가고 있어(도 6) 흥법국사탑의 둥근 탑신과 유사한 형태와 장식 의장을 보인다. 따라서 둘과의 연관성이 일찍부터 거론되었다.<sup>14</sup>

동북아시아 탑 상륜부에 보이는 복발은 원래 인도 불탑의 복발형 탑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일찍부터 이를 모방한 불탑과 사리기 등이 있었으므로 구형 탑신은 탑 상륜부 복발, 혹은 넓게 인도 스투파의 복발형 탑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흥법국사 탑의 탑신 표면의 피와 花紋 장식은 스투파 탑신이나 사리기에 공양되었던 꽃 타래 장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883년에 조성된 道憲(824~882년)의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과 956년에 조성된 지증대사의 제자 兢讓(878~956년)의 聞慶 鳳巖寺 靜眞大師圓悟塔에 둥근 사리기가 공양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도 7-1, 2). 지증대사탑은 기단 중대석 8면에 각각 안상을 표현하고 내부에 보살상 등을 조각하였는데 정면에는 연잎 위에 탁상을 두고 그 위 연화좌에 둥근 사리구를 놓고 위로 보개, 보주 등이 올려진 사리 장엄구가 조각되었다.

정진대사탑도 같은 위치에 유사한 사리장엄구가 있는데 다만 전자가 둥근 사리구 중

<sup>13</sup> 梁思成, 『中國建築史』(臺北:明文書局, 1981), p. 54, 65.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臺北:明文書局, 1982), p. 87에서 중국식 탑이 나타난 것은 동한 말기로 남북조시대에 융성했음을 언급. 村田治郎, 『中國建築史叢考』 佛寺佛塔篇(東京:中央公論美術出版, 1989), pp. 143-150; 石田茂作, 『佛教考古學論考』四, 佛塔篇(京都:平樂寺書店, 1978), p. 163; Nancy Statzman Steinhardt, "Yingxian Timber Pagoda",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New York:China Institute in America China House Gallery, 1984), p. 111 들은 전래된 탑이 간다라 양식이라 언급; 강병희, 「중국 고대 불탑의 기원과 발전」, 『동양미술사학』1집(동양미술사학회, 2012), pp. 1-37에서는 간다라탑의 영향을 받은 목조 중층누각형 탑은 4세기 이후이며 초기는 전통적인 祠堂과 예제 건축적인 모습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sup>14</sup> 각주 4 참조. 한편 이희봉, 앞의 책(2010,8), p. 58에는 흥법국사탑의 탑신이 상륜의 복발과는 달리 인도의 원형 스투파의 형태와 유사함을 언급함.



도 7-1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 기단 중대석  
사리공양도, 883년



도 7-2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 기단 중대석  
사리공양도, 956년

양에 화문을 두고 좌우로 횡대가 연결된 모습이라면 후자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양각선이 내려지고 좌우로도 돌려져 서로 십자로 만나는 각 지점에 화문을 장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956년에 조성된 정진대사탑의 사리구 표현은 11세기 초의 홍법대사탑 탑신과 매우 흡사하다. 동일한 모습이었다고 전하는 홍법대사의 스승 범경대사 탑이 941년에 만들어졌으므로 지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이 사리장엄구 조각은 범경대사 탑의 구형 탑신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주목되는 점이 지증대사 도현이 중국 선종 4조 도신의 5대째 제자로<sup>15</sup> 북종선의 계보를 잇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범경대사의 선사상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sup>16</sup>

이외 우리나라 부도에서는 탑 상륜부에 나타나는 인도 탑의 복발형 탑신이 기단부 중 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예가 朗空대사 行寂(832~916년)의 탑으로 추정되는<sup>17</sup> 울산 석남사 부도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옮겨져 있는 鳳林寺 眞鏡大師寶月凌空塔(도 8-1)이다. 낭공대사는 탑이 917년에, 탑비가 954년에 건립되었

<sup>15</sup> 최치원찬, 『聞慶 巖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文』(이지관, 『역대고승비문』신라편(가산문고, 1994 개정판), pp. 307-308)

<sup>16</sup> 이에 관해서는 Ⅲ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sup>17</sup>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학연문화사, 2003), pp. 312-316; 소재구, 앞의 학위논문(2002.6), pp. 22-25.



도 8-1 봉림사 진경대사보월능공탑, 923년

고 진경대사는 탑이 923년에, 탑비가 924년에 조성되었다.<sup>18</sup>

두 부도 모두 기단 중석이 편구형인데 석남사탑은 8각이 표현된 둥근형으로 각 면에는 상하와 좌우에서 안쪽으로 화문이 낮게 솟은 안상이 있고 진경대사탑은 좌우에만 전자와 유사한 화문이 있는 4개의 안상으로 둥근 면을 나누었다. 안상 내부에는 모두 중앙에 화문을 두고 이를 연결하는 볼록한 두 개의 횡선 띠가 조각되었다(도 8-2).

중국은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국적인 화장법도 함께 전해 받았는데 선종 4조인 道信선사(580~651년)에 이르러 중국식 매장법을 따르도록 한 이후<sup>19</sup>, 탑 기단부나 탑 아래 지공에 선사들을 모시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746년에 조성된 중국 河南省 登封縣 會善寺 淨藏에



도 8-2 편구형 기단 중석



도 9 중국 河南省 登封縣 會善寺 淨藏禪師塔, 746년  
(『中國美術全集』건축예술편 4, 도 18)

<sup>18</sup> 정영호, 『新羅 石造淨屠 研究』(신흥사, 1974), pp. 84-88과 pp. 127-142.

<sup>19</sup> 道宣저 이창섭역, 『續高僧傳』2(동국역경원, 1997), pp. 496-497.

禪師塔이(도 9) 그 중의 하나로 탑 하부가 ‘高墓’로 되어 있다고 한다.<sup>20</sup>

眞鏡大師탑은 탑에 납골 장소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sup>21</sup> 먼저 조성된 석남사부도는 편구형 기단 중대석 상면 중앙에 17cm×10cm, 깊이 7.5cm의 장방형 사리공을 두고 있다.<sup>22</sup> 따라서 중국식 매장법이 통용된 이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한국의 부도 기단부에 사리를 모시는 복발 양식이 차용되어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 Ⅲ. 禪宗 浮屠의 球形 塔身 출현

#### 1. 중국 南陽 慧忠국사의 ‘無縫塔’

홍법국사 부도의 球形 탑신은 일찍부터 보이는 인도 불탑의 둥근 탑신이나 이를 모방한 사리기, 혹은 중국에서 변용된 상륜부 등의 영향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래 오랜 동안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動因, 즉 복고적인 형태가 왜 갑자기 부도에 쓰여 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 때 주목되는 것이 南陽 慧忠국사의 ‘無縫塔’이다.

南陽 慧忠국사(?~775년)<sup>23</sup>는 靑原行思(?~738년), 南嶽懷讓(677~744년), 荷澤神會(684~758년), 永嘉玄覺(675~713년)과 함께 육조 혜능(638~713년)의 제자로 알려졌다.<sup>24</sup> 그는 荷澤神會가 남북 선종론으로 혜능을 높이고 靑原行思, 南嶽懷讓의 문하에서 여러 대에

<sup>20</sup> 梁思成, 앞의 책(1981), p. 86.

<sup>21</sup> 국립중앙박물관·(주)동안종합건설(2005),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문화재 이전』(씨티파트너, 2005), pp. 148-149.

<sup>22</sup> 『고고미술』제 3권 5호 (1962.5) 뉴스, 『고고미술』1-50 합본 p. 250의 「울산 석남사 부도의 중수」항목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파괴되어 재건되었으나 각 부재가 혼란되어 있어 1962년 5월에 다시 해체 복원하였다. 이때 사리공이 확인되었으나 사리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sup>23</sup> 調娜陽, 「代別雜考」, 『靑海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 37권 4기(2011. 9), p. 116에서는 남양 혜충국사의 생존기간을 677-775년으로 기록하였다.

<sup>24</sup> 『祖堂集』권3 慧忠국사 전에는 그가 16세에 조계를 방문하여 혜능의 수기를 받았음을 전하고 있다(김월운역, 『조당집』I(동국역경원, 2008 개정판), pp. 213-215). 그러나 鶴潭 평창, 「남양혜충선사의 전기」, 『남양혜충선사어록』(큰스레, 2007), pp. 21-22와 이부키 아츠시지 최연식역, 『중국 禪의 역사』(도서출판 씨·아이·알, 2011), pp. 119-120에서는 남양혜충과 영가현각이 혜능의 제자가 아니라 후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후자에서는 남악회양과 청원행사가 혜능의 계통이었는데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한다. 정성본, 『禪思想史』(불교사상사, 1993), pp. 229-230에서도 관련 사료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걸쳐 걸출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던 것과는 달리 探源應眞<sup>25</sup>, 당나라 숙종이 유일한 제자로 거론되는 현재 선종사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나 馬祖道一(709~788년), 仰山慧寂(807~883년) 등의 혜능의 제자와 법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禪師들의 기록과<sup>26</sup> 관련 연구에서<sup>27</sup>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당 현종, 숙종, 대종 3대에 걸쳐 황제의 초청으로 장안에 머무르며 황실과 나라의 국사로 활동하여 朝野에 이름을 알리며 남종선을 장안을 중심으로 북방 지역에 전파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결국 荷澤神會 이후 馬祖道一이 부각되기 전까지 중국 선종계를 風靡했던 사람으로 그의 탑은 ‘無縫塔’으로 불리는 둥근 형태로 조성되었다.

### 1) 南陽 慧忠국사

그는 浙江省 紹興府 諸暨縣 출신으로 속성은 冉씨다. 쌍봉에서 법을 받고<sup>28</sup> 혜능에게 인가를 받은 후<sup>29</sup> 五嶺, 羅浮, 武當, 四明 天目山을 거쳐서 河南省 白崖山 黨子谷에 香巖寺를 창건하고 40년 동안 하산하지 않았다. 香巖寺는 河南省 浙川縣 西南 倉房鄉磨溝村 西北 1리에 있으며 당 大歷 8년(773)에 황제가 <長壽寺>의 이름을 내렸다. 혜충국사를 탑 안에 모실 때 향기가 백리에 퍼져 한 달이 지나도록 가지지 않아 향엄사라 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송대부터 명대 전기까지 <향엄장수사>라 칭하였고 명 成化23년(1487)에 나라에서 다시 <顯通禪寺>의 이름을 하사하였다.<sup>30</sup>

755년 당나라 현종이 장안으로 천하여 龍興寺에 머물다 安史의 난이 일어나자 白崖山으로 돌아갔다. 신화가 입적한 후 4년이 지난 761년 다시 당나라 숙종이 스승의 예로 간곡하게 청하자 국사가 되어 장안 薦福寺 西院에 머물렀고 이어 대종의 귀의를 받아 宮廷과 가

<sup>25</sup> 『祖堂集』권4 探源화상전에 의하면 그는 원래 마조도일의 제자였으나 장안에 와서 혜충국사의 侍者가 되었다고 함(김월운역, 앞의 책(2008 개정판), pp. 274-275).

<sup>26</sup> 김월운, 『선문염송·염송설화』2(동국역경원, 2005), 고칙129-146의 혜충국사 공안, 고칙165의 馬祖의 ‘圓相’, 고칙291의 耽源과 馬祖의 ‘捏目’. 안동림 역주, 『벽암록』(현암사, 2011. 11쇄) 고칙 69의 ‘南泉一圓相’.

<sup>27</sup> 정성분, 앞의 책(1993), pp. 305-307; 조명계,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韓國思想史學』 42(2012.12), pp. 145-146; 任宜敏, 「慧忠國師禪要析論」, 『浙江學刊』(2000, 3기), pp. 22-23; 曾其海, 「牛頭禪의 傳承, 教旨及史料問題」, 『台州師轉學報』23권 1호(2001. 2), p. 5; 華方田, 「競爭力」思想·轉欄(2009. 7), p. 79.

<sup>28</sup> 『송고승전』 「당 균주 무당산 혜충전」(鶴潭 평창, 앞의 책(2007), p. 23)

<sup>29</sup> 각주 24 참조

<sup>30</sup> 향엄사 내의 古碑와 명대 碑(龐洪濤, 「香巖寺慈愍和尚碑」, 『中原文物』(2001. 5기), p. 79와 명대 『嘉靖南陽府志校注』, 『浙川香巖寺中興碑』(香巖寺研究課題組, 「香巖禪院自唐來-全國四大香巖寺考察報告」, 『呂梁高等轉科學校學報』26권 1기(2010.3), p. 84 재인용)

까운 光宅寺에 머무르는 등 宮內 설법을 16년간 주도하다 大歷 10년(775)에 입적하였다. 이에 대종이 薰子谷 香巖寺에 모시게 하고 大證禪師라는 시호를 내렸다.<sup>31</sup>

## 2) 慧忠국사의 禪

그는 남종선의 계승자이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선풍을 보인다. 그가 활동하였던 8세기는 남종선이 “卽心卽佛”의 頓悟를 주장하면서 북종의 “觀心看淨”의 漸悟와 차별화하며 대치하였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 그는 남종선의<sup>32</sup> 初祖인 혜능의 제자로 神會의 神秀(606~706년) 폄하를 비난하고 南宗禪의 不立文字보다는 경전과 스승의 설법을 중시하여 황제에게 건의해 香巖寺에 대장경 1질을 안치하기도 하였다.

無心禪으로 ‘卽心卽佛’의 頓悟를 견지하면서도 ‘身心一如’를 강조하며 선사로서는 처음으로 물, 숲과 같은 삼라만상이 불법을 설한다는 ‘無情說法’을 주창하였고 97종의 圓相을 개발, 활용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위양종 仰山慧寂에게 전해져 양산 문풍의 특징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南岳慧思(515~573년)를 사모하였다.<sup>33</sup>

南岳慧思는 北魏(386~534년), 東魏(534~550년), 北齊(550~577년)의 흥망이 이어졌던 남북조 말기의 혼란기를 살았다. 그는 최초로 실천적 법화사상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법화경』의 교학적 연구만이 아니라 그 경전이 제시하는 圓頓사상을 자각하여 삶 속에 실현함을 의미한다. 이를 그는 ‘法華三昧’, ‘大乘頓覺’이라 하였는데 그의 『法華經安樂行義』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법화경은 대승의 단박 깨치는 법이며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아 곧바로 부처를 이루는 길이니 일체세간이 믿기 어려운 법문이다. 무릇 모든 새로 배우는 보살이 대승을 구하여 모든 보살들을 뛰어넘어 빨리 부처 이루는 길을 구한다면 모름지기 지계, 인욕, 정진으로 부지런히 선정을 닦으며 오로지 마음으로 부지런히 법화삼매를 배워야 한다...법화보살은 곧 이와

<sup>31</sup> 『祖堂集』3권 慧忠國師傳(김월운, 앞의 책(2008 개정판), pp. 213-237). 『宋高僧傳』, 『佛祖統紀』, 『佛祖歷代通載』, 『釋氏稽古略』의 慧忠傳(鶴潭 평장, 앞의 책(2007), pp. 19-54)

<sup>32</sup> 關口眞大著 李永子譯, 『禪宗思想史』(홍법원, 1989), pp. 218-228에서 신회 이전에 구나발타라 혹은 보리달마를 1조로 하는 남종의 호칭이 있었고 이 중 보리달마 남종은 북종의 보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신회의 북종 공격과 남종 독립선은 신회 만년의 일로 북종 측에서는 당시 전혀 알지도 못했음을 지적한다. 박건주, 『중국 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운주사, 2007), pp. 98-131과 慧諲, 『北宗禪』(운주사, 2008), pp. 123-271에서는 사상적으로 남, 북종이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님을 논증한다. 따라서 혜충의 이러한 성향은 어느 정도 당시 불교적 상황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sup>33</sup> 각주 27 및 31 참조.

같지 않아서 차제행(단계적인 도)을 짓지도 않으며 또한 번뇌를 끊지도 않는다. 만일 법화경을 증득하면 마침내 불도를 이룸에 법화의 실천을 닦으면 二乘의 길을 가지 않는다.”<sup>34</sup>

이는 『법화경』이 신앙과 誦經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단박에 부처가 되도록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며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선의 관점에서 지계, 인욕, 정진으로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 실천적인 방도로 본 것이다. 깨달음에 있어 돈오를 주장하면서도 점수를 인정하는 선사상으로 존재의 모습이 본래 청정하므로 단계적인 이름에서 찾을 수 없으며 번뇌를 없애지 않고도 본래청정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법화경』의 諸法實相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이로서 말법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반야라는 인식론적 문제와 더불어 강력한 실천적인 요구가 필요했던 혜사는 『법화경』에 대한 이해를 실천적으로 바꾸어내는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그의 사상과 실천은 천태 지의의 지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禪 사상은 ‘諸法無諍三昧’, ‘隨自意三昧’, ‘安樂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닦는 것,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선정에 들어 육바라미를 갖추는 것, 『법화경』 「안락행품」의 선정중심의 실천법과 「보현권발품」을 수지독송하며 참회하는 행법, 그리고 『법화경』 경전의 문자에 의지하는 행법 등을 통해 중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머무르도록 하는 넓은 의미의 모든 실천 행을 내용으로 한다.<sup>35</sup>

즉 그는 지혜를 동반한 선정, 대승보살의 계율 지켜 따르기, 경전 염송 등의 다양한 단계의 실천행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 아래 그는 찾아드는 사람들을 大小乘의 定慧法으로써 근기에 따라 지도하였다 한다.<sup>36</sup>

혜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혜충국사의 기록은 그가 쌍봉에서 법을 받았다는 『송고승전』의 언급이다.<sup>37</sup> 쌍봉의 동산종은 혜사와 천태종의 사상적 발달이 반영되어 있다. 쌍봉은 湖北省 蕪州 雙峰山에서 선을 펼친 선종 4조 道信(580~651년)과 5조 弘忍(601~674년)을 말한다. 중국 선종사에서 혜능 이전을 크게 북종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達磨, 慧可, 僧瓚의 능가종, 도신과 흥인의 東山宗, 신수의 북종선으로 세분한다.

능가종은 『능가경』을 선양하였는데 三論宗의 교의인 모든 법의 진상은 상대적인 공을

<sup>34</sup> 『大正藏』46, 697c와 698b-c(오지연, 『天台 智顓의 圓頓止觀 研究』(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pp. 48-49과 慧源, 앞의 책(2008), pp. 118-119 재인용)

<sup>35</sup> 오지연, 위의 책(1999), pp. 45-60.

<sup>36</sup> 『속고승전』권 17(오지연, 위의 책(1999), p.47 재인용)

<sup>37</sup> 각주 28 참조

공하여 버린 불가득의 공이라고 관하여 生, 滅, 斷, 常, 一, 異, 去, 來의 八邪를 여윈, 얻음 없는 바른 견해인 ‘無得正觀’을 중시하였다. 또한 혜가의 선법이 삼론중에 전해졌음으로<sup>38</sup> 이 시기에 혜가, 능가종, 삼론종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능가종을 계승한 동산종은 개인적인 두타행을 떠나 집단적인 수행이 시작된 시기로 도신은 『文殊說般若經』의 ‘一行三昧’와 『법구경』과 도교의 정신단련법인 ‘守一’의 실천에 근거한 ‘守一不移’에 의거했는데 『文殊說般若經』은 천태지의의 ‘常坐三昧’의 근거로 염불에 의한 坐禪看心을 말하며 후자는 한 가지를 굳게 지켜 정신을 집중하여 흔들리는 앓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후에 홍인의 문하에서 염불왕생을 권장하거나 南山 念佛門의 선종이 나오기도 하다.<sup>39</sup>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염불은 단순한 칭명염불이 아니다. 『열반경』과 『대승기신론』은 인간은 누구나 불성과 여래장을 가지고 있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불성과 여래장은 바로 마음의 본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염불은 곧 念心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진여법성을 체험하여 깨달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을 떠난 시각, 즉 반야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이를 더 넓혀 스스로 자심에서 수행을 해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여래의 뛰어난 방편문으로 왕생을 발원하며 염불하는 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인연으로 정토에 왕생하여 부처님과 함께 하며 본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에는 누구나 모두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홍인은 ‘一行三昧’를 더욱 심화시켜 ‘守心說’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自性淸淨心이나 自覺聖智에 가까운 本心과 本眞心을 지키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자각하고 지킨다는 의미다. 이로부터 번뇌를 조복시키는 習禪에서 자성을 열어 드러내는 돈오선으로의 길이 시작된다고 하겠다.<sup>41</sup>

이상을 통해 볼 때 천태종 지의의 스승이었던 혜사의 선사상은 중관사상에서 연원하

<sup>38</sup> 야나기다 세이잔저 추만호·안영길 역, 『선의 사상과 역사』(민족사, 1991 3쇄), pp. 170-174. 정성본(1993), 앞의 책, pp. 121-146; 이부키 아츠시저 최연식역, 앞의 책(2011), pp. 32-50.

<sup>39</sup> 야나기다 세이잔저 추만호·안영길 역(1991 3쇄), 위의 책, pp. 174-179; 정성본, 위의 책(1993), pp. 147-160; 이부키 아츠시저 최연식역, 앞의 책(2011), pp. 50-62.

<sup>40</sup> 박건주, 『중국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운주사, 2008, 2쇄), pp. 378-408; 김영미, 『新羅 佛教思想史 研究』(민족사, 1994), pp. 363-379에서는 선사들의 이러한 경향이 신라 중대 이후 아미타신앙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고 함.

<sup>41</sup> 야나기다 세이잔저 추만호·안영길 역, 위의 책(1991 3쇄), pp. 180-183; 정성본, 위의 책(1993), pp. 160-168; 이부키 아츠시저 최연식역, 앞의 책(2011), pp. 50-62.

여 삼론종에 수용되었고 선종 초기의 능가종과 동산종은 천태와 삼론의 영향이 큰 우두종의 사상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2</sup> 실제 남양 혜충국사의 돈오적인 無心禪은 삼론종의 영향이 큰 우두종의 입장이고 ‘身心一如’의 사상은 혜사의 선바라미를 우선시하지만 ‘定慧均等’을 강조하는 일체법을 중시하는 태도와 맞닿으며 ‘無情說法’은 삼론과 천태의 교학에서 중요시한 테마였던 ‘非情佛性’의 논의와 연결된다.

결국 혜충국사는 혜능의 제자로 남종선의 頓悟의 입장을 견지하지만 그 내용은 혜사의 돈오점수와 禪敎점수에 가깝고 천태와 우두종의 영향이 컸던 능가종, 동산종의 선풍을 따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혜충국사의 ‘無縫塔’

송대 圓悟克勤(1063~1135년)의 『벽암록』18則<sup>43</sup>, 고려 말 혜謙(1178~1234년)·覺雲의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4권 146則<sup>44</sup> 本則에는 혜충국사의 ‘無縫塔’에 대한 화두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와서 숙종황제가 혜충국사에게 문기를 ‘돌아간 뒤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사가 말하기를 ‘老僧에게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황제가 말하기를 ‘국사에게 탑 모양을 묻습니다.’ 국사가 한참 있다 말하기를 ‘아셨습니까?’ 황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付法 제자 耽源이 있어 이 일을 알 것이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국사가 돌아간 후 황제가 탐원을 불러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 보니 탐원이 ‘湘의 남쪽 潭의 북쪽 그 중에 황금이 있어 一國을 채운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같은 배를 탔으나 유리 대궐에는 아는 이 없어라’라고云하였다.<sup>45</sup>

‘無縫塔’은 『拈頌說話』에서 理와 事, 性과 相이 등글어 꺾맨 자국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sup>46</sup> 『송고승전』 「혜충전」에는 그가 열반하자 황제가 관리를 보내 조문하였으며 칙령을 내려 大證禪師라는 시호를 내리고 黨子谷 香嚴寺에 돌아가 장사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 재

<sup>42</sup> 야나기다 세이잔지 추만호·안영길 역, 위의 책(1991 3쇄), pp. 201-205; 呂澂저 각소역, 『중국불교학강의』(민족사, 1992), pp. 247-253; 이승남, 『天台智顓의 中觀思想 研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 249-269.

<sup>43</sup> 圓悟克勤저 안동림역, 『碧巖錄』(현암사, 2011, 11쇄), pp. 140-144.

<sup>44</sup> 혜심 각운지음 김월은 옮김, 『선문염송·염송실화』 2(동국역경원, 2005), pp. 144-159.

<sup>45</sup> 각주 43 및 44의 本則 원문과 번역문 참조.

<sup>46</sup> 각주 44, p. 154.

가 제자들과 승제자 등 수 만 사람이 석실에 모신 마지막 선지식을 아파하고 운봉의 솜은 탑을 슬퍼하였다고 한다.<sup>47</sup>

또한 그를 탑에 모실 때 高官과 많은 사람들이 葬送하였는데 香煙이 퍼져 한 달이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아 인간이 드디어 불경 속에 흔히 묘사되는 ‘香光莊嚴’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이에 원래 長壽寺였던 것을 香嚴寺로 고쳤음이 사찰 내 古碑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sup>48</sup>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숭앙을 받으며 높은 봉우리에 그의 탑이 실재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향엄사에 있는 碑에 의하면 당나라 대종이 관리를 파견해 白崖山 淸風嶺에 無縫寶塔을 세웠으며 모양은 혜충선사의 사범 제자인 耽源應眞선사의 결정에 따랐다고 한다. 이후 명나라 말기에 이르러 탑이 雷雨大風의 피해를 입어 파괴되었는데 1721년 康熙朝의 名僧 顯愚謚선사가 혜충탑을 사원 내로 옮겨 중수하였으며 1735년에는 雍正帝가 眞實大證禪師로 봉함을 더하면서 南陽知府 王維新에게 명하여 많은 하사품과 함께 탑 앞에서 제를 지내어 높였다 한다.

그러나 1972년 탑이 헐어 없어지니 塔院도 망가졌다. 1992년 향엄사 文管所가 탑원 중건을 위한 일을 담당하여 2013년 현재 향엄사는 無縫寶塔을 재건할 예정이라 한다.<sup>49</sup> 한편 1972년 민국 때 건물을 지으면서 허물어진 청대 산에서 옮겨 중건된 탑은 지궁 터만 남아 있으며 그 건물은 관리소 직원들이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sup>50</sup>

耽源선사의 뜻에 따라 조성된 혜충국사의 ‘無縫塔’ 모습은 명, 청대에 쓰여진 詩句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명대 南陽 출신의 翰林 李袞曾이 수차례 향엄사를 방문하고 『無縫塔』이라는 詩를 지었는데 형태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천년의 무봉탑’이라 한 내용으로 보아 그가 본 탑이 당나라 때 세워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중수한 청대 顯愚謚선사가 일을 마치고 쓴 시에는

네 귀퉁이와 위아래가 실로 두루 몽실하니	四維上下實渾淪
누가 이를 받들이 한 나라의 황금임을 알았나	維識承斯一國金
예로부터 국왕이 공손한 모습으로 존경하여	自昔國王靖樣子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러러 보게 하였네.	令人瞻仰到如今

47 『宋高僧傳』 「慧忠傳」(鶴潭 평창, 앞의 책(2007), p. 32 재인용)

48 <http://www.huaxia.com>, 『豫台視窗』의 「“一僧一帝香嚴寺”系列“國師”創建千年古寺」(2011.1.10), p. 3

49 각주 48의 p. 3.

50 이은윤, 『밥그릇이나 씻어라』 중국선불교답사기 1-하남 하북성편(자작나무, 1997), p. 350.



도 10 湖北省 黃梅縣 破額山 魯班亭內 衆生石塔, 唐初 조성 1099년 중수(『中國古塔』p. 81)



도 11 浙江省 雁蕩山 송탑, 宋□□年造 명문(『中國佛塔史』p. 125)

라고 하여<sup>51</sup> 唐代부터 탑의 모습이 네 귀퉁이와 위아래가 두루 몽실한 즉 둥근 모습이었음을 알려 준다.

현재 중국의 일부 학자는 당나라 초기에 조성되었으나 宋代인 1099년에 중수된 湖北省 黃梅縣 破額山 魯班亭內 衆生石塔(도 10), 浙江省 雁蕩山의 宋□□年造的 명문이 탑에 새겨진 송탑(도 11) 등을 비롯한 몇몇 卵塔의 例들을 무봉탑이라 분류하고 있다.<sup>52</sup>

따라서 해충국사의 부도인 ‘無縫塔’은 그 정확한 전체 모습과 세부 양식을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탑신의 형태가 둥근 최초의 禪師 부도로 그 조성 배경과 의미가 전해지는 중요한 사례임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한편 ‘無縫塔’은 『拈頌說話』에서 理와 事, 性과 相이 등글어 꺾맨 자국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sup>53</sup>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4권 146則<sup>54</sup> 뒤에 이어지는 雪竇重顯(1178~1234년)등의 ‘頌’의 내용에서도 ‘無縫塔’은 이음새가 없는 탑으로 이는 쌓을 수 없는 탑이며 그러므로 허물어지지 않는 탑이며 또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떠나지도 않는 탑으로 생각도 없고 생각 없음도 없는 理와 事, 性과 相의 분별이 없는 본래 마음, 여래장, 불성을 상징하는 모습임을

51 각주 48의 p. 3. 청대 巖愚謚선사의 詩는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명예교수 정태현 선생님 번역.

52 張馥寶, 『中國佛塔史』(科學出版社, 2006), pp. 125-126; 孫波 林鐸主編 羅哲文撰文, 『中國古塔』(華藝出版社, 1990), p. 81과 149.

53 각주 44 참조.

54 혜심 각운지음 김월운 옮김, 『선문염송·염송설화』 2(동국역경원, 2005), pp. 145-159.

설명하고 있다.<sup>55</sup> 이는 선종에서 圓相과 球形이 절대 세계, 진여불성, 본체자성을 상징하고 있음과도 상통한다.

## 2. ‘無縫塔’과 淨土寺 弘法國師實相塔

정토사 홍법국사는 정토사 法鏡대사 玄暉(879~941년)의 제자로 정토사에 주석하였는데 이 절터에는 원래 3 기의 卵形 부도가 있어 주민들이 이를 ‘알독’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 이 부도들은 남아 있지 않고 태조 2년(943년)에 조성된 法鏡大師慈燈塔碑만 동일 寺址 부근에 옮겨져 있다.

원래 정토사는 하천리 개천산 옥녀봉 산기슭 밑에서 부터 강에 이르는 남동쪽 경작지 전체가 그 영역으로 추정되며 탐비는 이 경작지 서북쪽에 있었으나<sup>56</sup> 지금은 충주댐으로 인해 수몰되어 서북쪽 높은 곳으로 옮겨졌다. 941년에 조성된 충주 淨土寺 法鏡大師慈燈塔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반출되어 그 이후의 자취가 전혀 전해지지 않고 부락민들에 의해 그의 제자인 홍법국사탑과 동일한 ‘알독’의 모습이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홍법국사탑이 스승의 비문에 등장하는 남양 혜충국사의 ‘무봉탑’과 같은 둥근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 홍법국사 탑의 조성 배경에 대한 실마리를 전해준다. 고려 목종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법국사탑은 1915년 경북궁으로 이전 된 후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해체되어 현재 박물관 수장고에 있다.<sup>57</sup>

법경대사는 그의 慈燈塔碑文에 의하면<sup>58</sup> 처음 성주산문을 연 무염<sup>59</sup>의 제자인 深光대사를 찾아 법문을 듣고 크게 깨친바가 있었다. 대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미루어 5조인 東山の 법통을 생각하고 마치 5조와 6조를 만나서 더욱 환희하였으니 어찌 주야를 분간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나의 도를 선양할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너다.”라 하였다 한다.

898년 伽倻山寺에서 구족계를 받고 906년 당나라로 가는 배를 만나 중국에 이르러 石

<sup>55</sup> 혜심 각운지음 김월운 옮김, 위의 책(2005), pp. 145-159; 鶴潭 평창, 앞의 책(2007), p. 260-278.

<sup>56</sup> 鄭永鎬, 앞 보고서(1984), pp. 65-89.

<sup>57</sup> 이순우, 앞의 책(2003), pp. 93-112; 국립중앙박물관·(주)동안종합건설,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문화재 이전』(씨티파트너, 2005), p. 113에 별도의 보존처리를 거쳐 복원해야 함이 언급됨. 현재 우레탄 충전 포장되어 있다 함.

<sup>58</sup> 이하 법경대사 일대기 내용은 최연위 찬, 「충주 정토사 법경대사 자등탑비문」(李智冠 『역대 고승비문-고려편』 1(가산문고, 1994), pp. 207-248.) 참조.

<sup>59</sup> 朗慧無染(800~888년)은 중국에 들어가 마조도일의 제자인 麻谷寶微에게 수학하고 법을 받았으나 처음 출가는 중국에서 능가선을 배워 온 法性선사가 주석한 五色石寺에서 했다. 즉 북종선에서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범한, 「朗慧無染의 求道行과 남종선 체득」, 『성주사와 남혜』(서경문화사, 2001), pp. 71-95)

霜慶諸(807~888년)<sup>60</sup>의 제자인 道乾에게 배우고 계합하였다. 이후 중국의 천태산의 異蹟을 양모하여 천태조사의 탐을 참배하고 중국 호남 지역의 여러 선사들을 친견하였으며 북으로 燕과 蜀 등 여러 곳을 둘러보고 귀국하자 고려 태조가 충주 정토사에 머물 것을 청하여 여기서 선법을 펼쳤다고 한다.

그의 비문 중 본 논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은 첫째, 남양 혜충국사가 천태종의 시조인 혜사를 존경하였듯이 그도 천태산의 조사를 사모하여 그 탐을 참배하고 있고 둘째, 무득정관을 지향하며 셋째, 경전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실천을 중시하였고 넷째, 계율을 부지런히 닦아 心身一如를 지향하였으며 다섯째, 동산종은 도신이 염불에 의한 坐禪看心을 인정하여 이로 인해 제자인 홍인의 문하에서 염불왕생을 권장한 金陵法持(635~702)와 사천의 南山念佛門의 선종이 나오고 있는데<sup>61</sup> 선승인 법경대사와 흥법국사가 머물렀던 사찰의 명칭이 정토사였다는 점, 다섯째 혜충국사가 천태종 영향이 큰 동산종을 포함한 북종선적인 경향을 지녔듯이 법경대사도 북종선에서 시작한 무염의 제자로 동산종과 관련 있는 심광대사에게 처음 깨달음을 얻고 있는 등 동일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가 중국에 가기 전 세상이 어지러워 이를 피해 남쪽으로 향할 때 도적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웠음에도 이들을 교화한 사실이 남양 혜충국사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언급은 법경대사가 동일시하고 따르고자 한 선종 승려가 누구였는지를 잘 알려 준다. 이런 점에서 입적 전 노구를 이끌고 왕을 찾아 불법의 흥왕만을 부탁하고 굳이 다른 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비문 내용은 왕의 신임을 받다가 입적 전에 왕을 만나 문답을 주고받고 무봉답 조성을 부탁한 남양 혜충국사의 경우를 연상시키며 심지어 이를 능가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마조도일과 남양 혜충국사 제자인 探源應眞과의 ‘馬祖捏目’ 화두<sup>62</sup>, 마조와 참문선승과의 ‘馬祖一圓相’ 화두<sup>63</sup>, 馬祖道一의 제자들인 南泉普願, 歸宗智常, 麻谷寶徹(무염의 스승)이 남양 혜충국사를 참문하기 위해 가다가 圓相으로 서로 시험을 해 보고 갈 필요가 없다고 여겨 그만 두었다는 ‘南泉一圓相’ 화두<sup>64</sup> 등이 전해지고 있어 당시 육조 혜능의 제자들 간에 미친 남양 혜충국사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도 ‘무봉답’의 전래와 관련하여 고려

<sup>60</sup> 석상경저는 육조혜능의 제자 청원행사-석두희천-약산유엄-도오원지-석상경저로 이어진다.

<sup>61</sup> 각주 39 및 40 참조.

<sup>62</sup> 혜심 각운지음 김월은 옮김, 앞의 책(2005), pp. 291-292.

<sup>63</sup> 위의 책, pp. 259-261.

<sup>64</sup> 圓悟克勤저 안동림역, 앞의 책(2011, 11쇄), pp. 359-363.

해야 할 점이다.

법경대사의 제자인 홍법국사는 잠시 중국의 절강성과 복건성을 다녀왔으므로<sup>65</sup> 스승의 가르침과 함께 ‘무봉탑’에 대한 실제 전문도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스승인 법경대사의 ‘큰 알독’과 함께 ‘작은 알독’으로 불려 졌던 충주 정토사 홍법국사실상탑은 중국 혜능대사의 제자이면서도 북종선적인 경향을 견지하며 한 시대를 이끌었던 남양 혜충국사의 ‘무봉탑’에 영향 받아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 IV. 결론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은 羅末麗初 우리나라 선종 승려들의 부도와는 달리 8각의 탑신이 球形으로 조성되었다. 횡폭이 넓은 편구형 탑신에는 상, 하에 연판이 장식되고 두 줄의 끈 장식이 십자 형태로 중앙 4면에서 만나 그곳에 화문이 장식된다. 이는 불탑 상륜부의 복발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가 석탑 상륜부의 복발형에서 착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륜부 복발은 원래 인도 불탑의 복발형 탑신에서 비롯되었고 석굴에 조각, 혹은 부조된 불탑에서는 일찍부터 구형의 복발이 보이며 이들을 모방한 사리기 등이 있으므로 넓게 보아 인도 스투파의 복발형 탑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러진 끈과 화문도 인도 스투파에 봉헌 장식되는 꽃 타래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인 발생 배경은 중국 남종선 혜능의 제자인 南陽 慧忠국사(?~775년)의 ‘無縫塔’이다. 그는 당 현종, 숙종, 대종 3대에 걸쳐 황제의 초청으로 장안에 머무르며 황실과 나라의 국사로 활동하여 朝野에 이름을 알렸고 남종선을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지역에 전파시켰다.

그는 馬祖道一(709~788년)을 비롯한 혜능의 제자, 법손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仰山慧寂(807~883년)은 혜충국사의 圓相을 활용하는 가르침을 계승하여 滄仰宗을 열었다.

중국 선종은 처음 불성 혹은 여래장사상과 유식사상이 결합된 능가경을 중심으로 하는 능가선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어 천태종의 발달이 반영된 동산종을 거쳐 이를 심화하는

<sup>65</sup> 孫夢周撰, 『淨土寺洪法國師實相塔』(서울특별시, 『서울금석문대관』(1987), pp. 89-98), 李智冠 『역대 고승비문-고려편』 2(가산문고, 1995), pp. 168-179).

신수의 북종선에 이르렀고 여기서 다시 금강경의 空사상에 기반한 ‘자각’에 집중하는 수련 방법을 강조한 남종선에 도달했다.

혜충국사는 북종선인 동산종의 법과 혜능의 인가를 받아 모두를 융합한 걸림 없는 선풍을 펼쳤다. 無心禪으로 ‘卽心卽佛’의 頓悟를 지향하면서도 南岳慧思(515~573년)를 사 모한 점, ‘身心一如’를 강조한 점, 선사로서는 처음으로 물, 숲과 같은 삼라만상이 불법을 설 한다는 ‘無情說法’을 주창한 점, 97종의 圓相을 개발, 활용하는 방편을 사용한 점 등에서 3조 僧璨까지의 능가종, 4조 道信과 5조 弘忍의 동산종, 즉 천태와 삼론의 영향이 큰 북종선의 입장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神會의 神秀(606~706년) 편하를 비난하고 남종선의 폐단을 비평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南宗禪의 不立文字보다는 경전과 스승의 설법을 중시하여 황제에게 건의해 자신이 있던 香巖寺에 대장경 1질을 안치하기도 하였다. 이런 그의 과도기적인 선사상은 신회 이후 마조도일의 문하가 번성하기 이전 시대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송대 이후의 공안집에는 혜충국사의 ‘무봉탑’에 관한 화두가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 그가 황제에게 理와 事, 性과 相이 동글어 께맨 자국이 없는 탑을 만들어 달라는 말을 남겼고 제자인 탐원응진에 의해 탑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탑은 명나라 말기에 무너졌으며 1721년 탑을 중수했던 顯愚謚선사의 시에서 둥근 형태였음이 확인된다.

정토사 홍법국사는 정토사 法鏡대사 玄暉(879~941년)의 제자로 정토사에 주석하였는데 이 절터에는 원래 3기의 卵形 부도가 있어 주민들이 이를 ‘알뚱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 941년에 조성된 법경대사탑은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어 자취를 알 수 없고 고려 목종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법국사탑은 1915년 경북궁으로 이전되어 현지에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태조 2년(943년)에 조성된 法鏡大師慈燈塔碑만 동일 寺址 부근에 옮겨져 있다.

법경대사 탑비에는 그가 성주산문의 무염과 청원행사의 법맥을 이었으면서도 유독 남양 혜충국사를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 따르고 있음을 전해주는데 자신과 제자인 홍법국사탑이 둥근 탑신을 보이고 있어 ‘무봉탑’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무봉탑’은 본래 마음, 여래장, 불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종에서 원상과 구형을 절대 세계, 진여불성, 본체자성을 의미하는 것과는 상통한다.

결국 홍법국사탑의 구형탑신은 멀리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씨앗인 사리를 담은 불탑의 복발, 가깝게는 여래장, 진여불성, 본체자성을 의미하는 ‘무봉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구형탑신은 불교의 발달과 함께 唐代에 이르러 오랜 불탑 복발의 상징성에 선종적인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법경대사의 스승인 朗慧無染이 처음 북중선에서 수행을 시작했고 그의 제자인 圓朗禪師가 주석했던 월광사 터에서 신라 말 조성으로 추정되는 구형 부도재가 발견되고 있어<sup>66</sup> 무염계와 혜충국사와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圓朗禪師는 仰山 慧寂을 스승으로 모셔 혜충국사와의 법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원형이 파괴된 무염의 탑과 양산의 법을 이어 다양한 圓相을 사용하여 이를 후대에 전할 수 있게 했던 五冠山 瑞雲寺 了悟和尚 順之의 탑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그들의 부도는 사상과 법맥상 구형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한국의 선종사에서 자치하는 남양 혜충국사의 영향력과 의의, 선종사상사의 구체적 전개를 규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도 12 제천 월광사지 절터 밖 무덤가의 양연과 복련 부재, 9세기 말 혹은 고려 초 추정



도 13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하대석 양연, 통일신라시대, 광주박물관 소장



도 14 강릉 굴산사지 부도 상륜 부주 연판, 889년 혹은 나말려초 추정

<sup>66</sup> 월광사 寺址 밖 무덤가에 놓인 부재 중 부도의 상대석으로 쓰인 양련석으로 추정되는 연화대석(도 12) 상면에 탑신석 받침이 놓였던 원형 자국이 남아 있어 球形 부도의 부재들로 보인다.(충청대학박물관·제천시, 『堤川 月光寺址』(1998), pp. 53-55) 이들은 사지 복단에 남겨진 월광선사 부도재와 연판의 떨어져 나간 귀꽃의 모습, 연판 내부에 돌기상의 화문을 장식하는 수법 등이 마치 동일 부재인 양 닮아 있다. 이 중 양련이 2층으로 장식된 연화대석은 연판이 비스듬히 운동감 있게 표현되었는데(도 12) 통일신라시대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하대석의 양련(도 13), 나말려초(정영호, 『굴산사지부도의 복원과 고찰』, 『굴산사지부도 학술조사보고서』(강릉대박물관, 1999), p. 86) 혹은 889년에 조성된 通曉대사 梵日(?-889년)의 부도로 추정되는(엄기표, 『굴산사지 석조부도의 주인공과 미술사적 의의』, 『선사와 고대』(한국고대학회, 2012.12), pp. 274-293) 江陵 掘山寺址浮屠의 상륜부 보주 하단 연판(도 14) 등 신라 하대 연판들의 생동감 있게 휘날리듯 한 양식과 동일하여 주목된다.

\*주제어(Key Words)\_복발(anda), 남양 혜충국사(南楊 慧忠國師, national master Namyang Hyechung), 무봉탑(無縫塔, seamless shape monk stupa), 구형 부도(球形 浮屠, sphere body stupa), 북종선(Northern Zen), 여래장(tathagatagarbha)

■ 투고일 2013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3년 3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24일 ■

## 참고문헌

### 1. 사료

- 『嘉靖南陽府志校注』  
『開豐 瑞雲寺 了悟和尚 眞原塔碑文』  
『藍浦 聖住寺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文』  
『大正藏』46  
『開慶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文』  
『碧巖錄』  
『浙川香巖寺中興碑』  
『禪門拈頌·拈頌說話』  
『續高僧傳』  
『宋高僧傳』  
『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碑文』  
『忠州 月光寺 圓朗禪師 大寶禪光塔碑文』  
『忠州 淨土寺 法鏡大師慈燈塔碑文』

### 2. 저서

- 고유섭, 『조선탑파의 연구』下 -우현 고유섭 전집 4권, 열화당, 2010.  
關口眞大著 李永子譯, 『禪宗思想史』, 흥법원, 1989.  
국립중앙박물관·(주)동안종합건설,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문화재 이진』, 씨티파트너, 2005.  
김영미, 『新羅 佛教思想史 研究』, 민족사, 1994.  
김월운역, 『선문염송·염송설화』2, 동국역경원, 2005.  
\_\_\_\_\_, 『조당집』1, 동국역경원, 2008 개정판.  
김인호, 『서운사 요오화상 진원탑비』, 『역주나말려초금석문』下, 한국역사연구회, 1996.  
道宣저 이창섭역, 『續高僧傳』2, 동국역경원, 1997  
박건주, 『중국 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 운주사, 2007.  
서울특별시, 『서울금석문대관』, 1987.  
야나기다 세이잔저 추만호·안영길 역, 『선의 사상과 역사』, 민족사, 1991 3쇄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呂澂저 각소역, 『중국불교학강의』, 민족사, 1992.  
圓悟克勤저 안동림역, 『碧巖錄』, 현암사, 2011, 11쇄.  
이부키 아츠시저 최연식역, 『중국禪의 역사』,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1.

-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들』, 하늘재, 2003.
- 이은윤, 『밥그릇이나 씻어라』 중국선불교답사기 1-하남 하북성편, 자작나무, 1997.
- 李智冠 『역대고승비문』신라편, 가산문고, 1994 개정판.
- \_\_\_\_\_, 『역대고승비문』고려편 1, 가산문고, 1994.
- \_\_\_\_\_, 『역대 고승비문-고려편』 2, 가산문고, 1995.
- 정선본, 『신라선종의 연구』, 민족사, 1995.
- \_\_\_\_\_, 『禪思想史』(불교사상사, 1993)
- 정영호, 『新羅 石造浮屠 研究』, 신흥사, 1974.
- 정운, 『구법』, 솔바람, 2007.6.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四(1916)
- 下中彌三郎編, 『世界美術全集』11권, 平凡社, 1957.
- 鶴潭 평창, 『남양혜충선사어록』, 큰수레, 2007.
- 혜심 각운지음 김월운 옮김, 『선문염송·염송설화』 2, 동국역경원, 2005.
- 慧諤, 『北宗禪』, 운주사, 2008.

### 3. 논문

- 강병희, 「묘향산 용주봉의 진신사리탑을 통해 본 球形浮屠」, 『北韓의 文化遺産』,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문화유산연구소 학술대회논문집, 2012. 5. 12.
- \_\_\_\_\_, 「묘향산 용주봉의 진신사리탑을 통해 본 球形浮屠와 사리구」, 『불교미술사학』, 불교미술사학회, 2013. 3.
- \_\_\_\_\_, 「중국 고대 불탑의 기원과 발전」, 『동양미술사학』1집, 동양미술사학회, 2012.
- \_\_\_\_\_, 『고려 현종대 銘文석탑의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고고미술편집부, 『고고미술』제 3권 5호 (1962.5) 뉴-스, 「울산 석탑사 부도의 중수」항목, 『고고미술』 1-50 합본
- 고익진, 『韓國 古代 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 김두진, 「현휘와 탄문의 불교사상-고려 초의 교선융합사상과 관련하여」, 『역사와 인간의 대응』한국사편, 한울, 1984.
- 김영미, 「朗慧無染의 禪思想」,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 김준오 천득염, 「인도 석굴사원의 Relief Stupa 연구」, 『건축역사연구』83, 2012.8.
- 蘇在龜,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6.
- 엄기표, 「굴산사지 석조부도의 주인공과 미술사적 의의」, 『선사와 고대』, 한국고대회, 2012.12.
- 오지연, 『天台 智顓의 圓頓止觀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승남, 『天台智顓의 中觀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희봉, 「인도 스투파의 '자궁-알' 상징성 고찰을 통한 탑 상부 복발 양화와 단청 석류동의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89호, 2012.11
- \_\_\_\_\_, 「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인도 스투파에서부터 한국 석탑으로의 변환을 바탕으로

- 로, 『건축역사연구』71호, 2010.8.
- \_\_\_\_\_, 「탑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 『건축역사연구』67, 2009.12.
- 鄭永鎬, 「月岳山 月光寺址와 圓朗禪師大寶禪光塔에 대하여, 『고고미술』129·130, 1976.6.
- \_\_\_\_\_, 「中原 淨土寺址 A·B地區 發掘調査 報告-1983年度,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査綜合 報告書-佛蹟分野』, 忠北大學校博物館, 1984.
- \_\_\_\_\_, 『동원 김홍배박사고회기념논문집』, 「고려시대의 특수형부도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84.
- \_\_\_\_\_, 「굴산사지 부도의 복원과 고찰, 『굴산사지부도 학술조사보고서』, 강릉대박물관, 1999.
-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雪竇 7部集, 『韓國思想史學』42, 2012.12.
- 조범환, 「朗慧無染의 求道行과 남종선 체득,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 천득염, 「인도시원불탑의 의미론적 해석, 『건축역사연구』4호, 1993.12.
- 최병현, 「신라하대선종구산파의 성립, 『한국불교선문의 형성사연구』, 민족사, 1992, 3쇄.
- 추만호, 「나말려초 선사들의 선교양종 인식과 세계관, 『국사관논총』52, 국사편찬위원회, 1994.
- 황수영, 「新羅聖住寺 大朗慧和尚 白月葆光塔의 調査, 『고고미술』100, 1968.11.

#### 4. 중국 저서와 논문

- <http://www.huaxia.com>, 『豫台視窗』의 "一僧一帝香嚴寺" 系列 "國師" 創建千年古寺, 2011.1.10.
- 龐洪濤, 「香嚴寺愍愍和尚碑, 『中原文物』, 2001. 5기.
- 孫大章 喻維國主編, 『中國美術全集』建築藝術編 4,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8.
- 孫波 林鐸主編 羅哲文撰文, 『中國古塔』, 華藝出版社, 1990.
- 梁思成, 『中國建築史』, 臺北:明文書局, 1981.
- 任宜敏, 「慧忠國師禪要析論, 『浙江學刊』, 2000. 3기.
- 張馭寰, 『中國佛塔史』, 科學出版社, 2006.
- 調娜陽, 「代 別」 雜考, 『青海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 37권 4기, 2011. 9.
- 曾其海, 「牛頭禪的傳承, 教旨及史料問題, 『台州師轉學報』23권 1호, 2001. 2.
- 香嚴寺研究課題組, 「香嚴禪院自唐來-全國四大香嚴寺考察報告, 『呂梁高等轉科學校學報』26권 1기, 2010.3.
- 華方田, 『競爭力』思想·轉欄, 2009. 7.

#### 5. 일본·서양 저서

- 石田茂作, 『佛教考古學論考』四, 佛塔篇, 京都:平樂寺書店, 1978
- 村田治郎, 『中國建築史叢考』佛寺佛塔篇, 東京:中央公論美術出版, 1989.
- Nancy Statzman Steinhardt, "Yingxian Timber Pagoda",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New York:China Institute in America China House Gallery, 1984)

## 국문초록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은 羅末麗初의 다른 부도들과는 달리 8각의 탑신이 球形으로 조성되었다. 횡폭이 넓은 편구형 탑신에는 상, 하에 연판이 장식되고 두 줄의 끈 장식이 십자 형태로 중앙 4면에서 만나 그곳에 화문이 장식되는 모습은 불탑 상륜부의 복발과 유사하다.

이러한 형태는 석탑 상륜부의 복발형에서 착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륜부 복발은 원래 인도 불탑의 복발형 탑신에서 비롯되었고 석굴에 조각, 혹은 부조된 불탑에서는 일찍부터 구형의 복발이 보이며 이들을 모방한 사리기 등이 있으므로 넓게 보아 인도 스투파의 복발형 탑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러진 끈과 화문도 인도 스투파에 봉헌 장식되는 꽃 타래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인 기원은 중국 남종선 혜능의 제자인 南陽 慧忠국사(?-775년)의 ‘無縫塔’이다. 그는 당 현종, 숙종, 대종 3대에 걸쳐 황제의 초청으로 장안에 머무르며 남종선을 북방 지역에 전파시켰다. 그는 3조 僧璨까지의 능가종, 4조 道信과 5조 弘忍의 동산종, 즉 천태와 삼론의 영향이 큰 북종선의 입장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그의 과도기적인 선사상은 馬祖道一(709-788년)을 비롯한 혜능의 제자, 법손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였고, 특히 仰山慧寂(807-883년)은 혜충국사의 圓相을 활용하는 가르침을 계승하여 滄仰宗을 열고 있음을 볼 때 신회 이후 마조도일의 문하가 번성하기 이전 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송대 이후의 공간집에는 혜충국사의 ‘무봉탑’에 관한 화두가 남아 있어 황제가 그의 제자 탐원 응진을 통해 理와 事, 性과 相이 동글어 께맨 자국이 없는 탑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고 모습은 1721년 탑을 중수했던 巖愚謚선사의 시에서 둥근 형태였음이 확인된다.

정토사 홍법국사는 정토사 法鏡대사 玄暉(879-941년)의 제자로 정토사에 주석하였는데 이 절터에는 법경대사와 홍법국사 탑을 포함해 원래 3기의 卵形 부도가 있어 주민들이 이를 ‘알독’이라 불렀다고 한다. 법경대사 탑비에는 그가 성주산문의 무염과 청원행사의 법맥을 이었으면서도 유독 남양 혜충국사를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 따르고 있음을 전해주는데 자신과 제자인 홍법국사탑이 둥근 탑신을 보이고 있어 ‘무봉탑’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무봉탑’은 본래 마음, 여래장, 불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종에서 원상과 구형이 절대 세계, 진여불성, 본체자성을 의미하는 것과 상통한다.

결국 홍법국사탑의 구형탑신은 멀리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씨앗인 사리를 담은 불탑의 복발, 가깝게는 여래장, 진여불성, 본체자성을 의미하는 ‘무봉탑’에서 기원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로써 구형탑신은 불교의 발달과 함께 당대에 이르러 오랜 복발의 상징성에 선종적인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되었던 것이다.

## Abstract

#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Stupa of State Preceptor Hongbeop in Jeongtosa Temple

**Kang Byung-hee \***

Stupa of State Preceptor Hongbeop moved from Jeongtosa Temple Site is characterized by a oval body tied with two strings crossing on the side with a floral design on the point of crossing and laid between two lotus blocks, one above and the other below it. This stupa body is similar to the “inverted bowl” of the Northeast Asian pagoda headdress. Considering the “inverted bowl” of the pagoda headdress originated with a same body of ancient Indian stupa, the appearance of such oval body stupa on the carvings in ancient Buddhist grottos and Stupa as well as the same figured sarira containers from early, this stupa body may have been originated from the inverted bowl-shaped body of ancient Indian stupas. And the strings and floral engraving on the surface can also trace back to the Indian stupas decorated with floral ornaments for dedication.

A more direct influence can be found at the Mubongtap (無縫塔, seamless shape stupa) erected to honor State Preceptor Nanyang Huizhong (南陽 慧忠國師, ?-775), a pupil of the Sixth Patriarch of Chinese Zen Buddhism Huineng (慧能, 638-713). He exerted a strong influence upon the development of Chinese Buddhis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fore the prosperity of the Mazu Daoyi(馬祖 道一) School with the viewpoint of Northern Zen Buddhism which was under a strong influence from Tiantai(天台) and Sanlun(三論) Schools. His stupa erected by a Tang emperor through his pupil Danyuan Yingzhen(耽源 應真) was characterized by a seamless spherical body as depicted in a poem written by a Zen monk

---

\* Lecturer, Chungbuk University

Zhuan Yumi(顥愚謚) who restored the stupa in 1721.

According to an inscription on the monument of Priest Byeopgyeong (法鏡大師, 879-941), he followed State Preceptor Nanyang Huizhong as his model although he was a legitimate successor to Muyeom(無染, 800-888) of the Seongju mountain School(聖住山門) and Qingyuan Xingsi(靑原行思, ?-738). The round body of the stupas erected to honor Priest Byeopgyeong and his pupil State Preceptor Hongbeop reveals that the monuments were influenced by the seamless shape stupa. The stupa means Original mind(本來心), Tathagatagarbha(如來藏), or Buddhadhatu(佛性), and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symbolism of Zen Buddhism in which a circle or sphere represents the Absolute world(絕大世界), Tathata Buddhadhatu(眞如佛性), and Noumena Svabhava(本體自性).

In sum,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spherical body of the Hongbeop's stupa can trace as far back as the “overturned bowl” of the ancient stupas enshrining Buddha's sariras, which are deemed as the seeds of the world to be created, and, more recently, the “Seamless shape Stupa” which symbolizes Tathagatagarbha, Tathata Buddhadhatu, and Noumena Svabhava. The development of Buddhism during the Tang(唐) period led the stupas' spherical body to combine the ancient symbolism of the “inverted bowl” with a new meaning based on Zen Buddhism.